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로 도정혁신 꾀한다

전북도, 팀별 벤치마킹 시즌2 아이디어 16개 최종 선정… 선정 팀장 근평·직무성과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전북도가 역동적이면서 창의적인 혁신을 위한 팀별 벤치마킹 시즌2 아이디어 16개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팀별 벤치마킹 시즌2 아이디어 발표 심사'를 통해 회계과·청사관리팀의 '모듈형 스마트 업무공간 혁신', 정보화정책과·스마트행정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일하는방식 혁신' 등 최종 16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16명의 팀장에게는 근무평가 및 직무성과 가점을 부여되고, 우수 아이디어는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우대된다.

최종 선정 보고회는 지난 9월부터 32일 동안 개최된 실국별 벤치마킹 보고에서 택시·도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출된 323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한 노고를 포상·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수 아이디어는 각 실국에서 1차로



전북도가 역동적이면서 창의적인 혁신을 위한 팀별 벤치마킹 시즌2 아이디어 최종 선정 보고회에서 16개를 최종 선정했다.

소관 총 49개 아이디어를 추천한 다음, 전체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팀장이 직접 본인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실국장들의 평

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사를 통해 팀장들이 직접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가 보완·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업무의 핵심인 팀장들이 도정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안들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동계작물 재해보험 가입 접수

전북도는 겨울 한파, 냉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0~11월 중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10~11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12개 품목이며, 지역 농·축협 방문, 상담을 통해 이뤄진다.

가입 기간은 △마늘 10월 4일~27일 △보리·밀 10월 10일~12월 1일 △양파 10월 23일~11월 24일 △인삼 10월 30일~11월 24일 △오디·매실·복분자·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 11월 6일~12월 1일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45%는 도와 시·군이 부담해 가입농가는 5~20%만 납부를 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보

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마늘, 인삼 등 12개 품목을 재배하는 4,707농가가 6,180㏊를 보험에 가입, 올해 3~4월 저온 피해 등을 입어 보험금 74억원을 지급받아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로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원주군에 한 마늘 농가의 경우 농가 자부담 5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저온 등의 피해로 78배나 많은 390만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해마다 이상기후로 재해 발생 예측이 어려워지고 일상화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업경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AI 인체감염증 주의하세요"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시기 와 도내 하천의 야생조류 시료채취 결과 병원성 바이러스로 확인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이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바이러스의 인체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감염병을 말한다.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며 발열(38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 인체감염 발생사례는 없으나, 최근 서울시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섭취한 생식사료(오리고기) 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이에 전북도는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노출 위험이 있는 살처분관계자 등 대응요원 2,100여 명에 대해 계절인플루엔자 사전접종과 예방교육을 시행해 유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며, "가금류, 야생조류와 접촉후 발열 등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 하반기 운영회의 개최

전북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위험시설 건축물 19개소, 시설물 11개소 총 30개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시설물인전법 대상시설 1, 2, 3종 시설에서 재외체 정기안전 점검·정밀안전점검 등 법적 점검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토목 등 9개 전문분야 대학교수,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4월 새롭게 위촉돼 2025년까지 2년 임기 동안 전문지식을 활용해 각 시·군

에서 선정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